

2 뉴스

돌아온 봄, 이어지는 쓰레기

석예진 기자 stpk02@knu.ac.kr
정예은 기자 yegold@knu.ac.kr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춘객으로 인한 혼란이 재연되고 있다.

우리학교 양 캠퍼스(양캠)는 매년 벚꽃 개화 기간을 맞아 ▲교내 건물 내 외부인 출입 ▲쓰레기 증가 ▲도로 마비 ▲불법주정차 등의 문제를 겪어왔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캠퍼스를 찾는 유동인구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한동안은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축제 기간을 앞두고 제일 먼저 문제가 된 것은 쓰레기 무단 투기였다. 지난 2일 2시경 청운관 옆 노란 건물(경희의료원 문화복지시설) 1층 남자 화장실에는 함부로 버려진 쓰레기들이 가득했다. 화장실 세면대 주위를 틈 없이 에워싼 쓰레기의 대부분은 일회용 음료수 컵이나 음식물 포장 용기와 같이 취식 후 남겨진 잔해들이었다.

늘어난 쓰레기로 몸살을 겪는 것은 해당 건물 뿐이 아니었다. 생활 과학대학(생과대) 건물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노동자 A 씨는 “학교에 외부인도 들어오고 하니 쓰레기가 평소보다 많이 생기는 편이다”며 “월요일에 왔더니 생과대 경사로 위 쓰레기통 부근에 쓰레기가 한가득 쌓여있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국제캠퍼스는 물려든 외부차량으로 정체 현상을 빚어 나가는 데 1시간이 소요됐다.

(사진1=이승찬 제공, 사진2=하루 제공, 사진3=대학주보 DB, 사진4=정예은 기자)



전했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역시 늘어난 쓰레기로 인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교내 길가 곳곳에 배치된 쓰레기통에는 쓰레기가 넘쳐났다. 분리배출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물론, 카페 음료 컵들이 쓰레기통 위에 무질서하게 올려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 주변에는 배달 음식 쓰레기들이 뒤섞인 봉투들이 버려져 있기도 했다. 쓰레기 처리를 맡은 관리팀 직원 A 씨는 “지난 주말 동안 쌓인 쓰레기양은 말도 못하게 많았고, 술병 같은 쓰레기도 유독 많았다”며 “사색의 광장에서 쓰레기가 한 트럭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교내 건물로의 외부인 출입도 다

수 목격됐다. 국제캠 중앙도서관의 경우 작년과 달리 문 앞에 보안 직원이 배치돼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불편이 줄어든 편이었으나, 학생회관이나 기숙사 같은 그 외 건물로의 무단출입은 완벽한 통제가 불가했다. 이 외에도 광장 내 잔디밭 안으로 들어가거나 사색의 광장 내 석상에 올라가는 경우도 발견됐다. 지난 주말 서울캠에서도 건물 내 외부인 출입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교내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학내 커뮤니티에 연이어 올라왔다.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지난 주말 동안의 국제캠 내 도로 상황이었다. 광역버스 기사 A 씨는 “매 해 벚꽃 개화 시기마다 반복되는

일이다”며 “교내 차고지에서 정문 까지 4분이면 나가는데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시간씩 걸렸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기사 B 씨는 “길가 불법 주차는 물론 상춘객들이 버스 차고지에까지 주차를 하는 바람에 불편이 많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A 씨는 “주차비 정산이나 교내 획단보도 때문에 도로 마비 상황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기간 만큼은 학교 측의 사전대처가 잘 되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경찰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관련해 양캠 총무관리처는 부서 별로 문제 상황을 분담해 관리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중이다.

문과대학 보궐선거 끝내 무산

장비슬 기자 eva6155@knu.ac.kr

문과대학(문과대) 보궐선거가 2차 연장 투표에서 투표율 과반을 넘지 못해 43.6%로 무산됐다.

문과대 보궐선거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투표 3일차 기준 31.0%로 문과대 학생회 선거시행세칙 6장 47조에 의해 31일까지 투표가 연장됐다. 2차 연장까지 투표가 진행됐지만, 유권자 1,245명 중 543명만이 참여했다.

문과대 선거시행세칙 4장 1조 나항에 따르면 재학생이라 할지라도 선거일 기준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의결로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는 ▲취업 ▲교환학생 ▲실습 등의 인원이 모두 명부에 존재했다.

또 사학과 학생들이 3일간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사학과 춘계 답사는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이에 선관위는 사학과 답사 숙소에 투표소를 개설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무산됐다. 답사자 예선 투표소 설치와 관련해 참여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총회가 열렸다. 그러나 ▲임다은 부후보(사학 20)가 현장에 있는 점 ▲투표 관리에 대한 방안이 없는 점 ▲사학과 만 개별 투표소가 설치되는 점 등의 반대 발언이 나와 반대로 의결됐다.

▶5면으로 이어짐



2023-1학기 경희꿈도전장학 신청안내문

1. 목적

- 가. 학생들의 인생목표 수립, 진로탐색 등 심도있는 자아성찰 계기마련
- 나. 목표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 추진, 결과물 도출을 통한 학생 융합설계능력 함양
- 다. 교수-학생 간 실질적 지도 계기 마련

2. 지원대상

- 2023-1학기 기준 3학기 이상의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 정규학기 재학생
-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전의지가 있는 학생
-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정규학기 초과자, 장학규정 위배자, 2023-1학기 휴학(예정)자 신청불가
- 성적 및 이수학점, 가계곤란정도 제한없이 신청가능
- 개인 또는 팀으로 신청 가능

3. 신청제한

- 가. 경희꿈도전장학 기수혜자는 개인 또는 팀리더로 신청불가
 - ※ 경희꿈도전장학 기수혜자를 팀원으로 포함할 경우에는 선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나. 경희꿈도전장학 신청주제로 타 장학금을 수혜하거나 학점을 이수한 경우 신청불가
 - ex) 독립연구, 전환21장학 등

4. 지원 시 유의사항

- ① (팀으로 참여 시) 팀장 및 팀원 전원 인포21시스템으로 경희꿈도전장학 온라인 신청 필수
- ② (팀으로 참여 시) 팀장 및 팀원 전원 면접 전형에 참가 필수
 - * 대리 참석 불가하며 팀 구성원 중 1명이라도 불참 혹은 대리참석 시 선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③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 수업연한 내 정규학기 재학생이 아닌 경우 경희꿈도전장학 지원 및 참여 불가
 - * 예시) 타 대학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팀장/팀원 불문하고 경희꿈도전장학 참여 불가
- ④ 대리 참석 방지를 위하여 면접 대상자 신원 확인 예정이며 면접 참석 시 사진 부착된 신분증(학생증 등) 지참 필수

5. 도전분야 :

- ① 창업 / ② 자유주제 / ③ 학술연구 / ④ SDGs(경희정신구현)

- ※ 분야를 택일하여 장학신청/도전분야와 활동계획서의 내용이 일치한 관련이 있어야 함
- ※ 학술연구분야의 경우 중간/결과보고서 등 모든 결과물을 논문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6. 장학금 신청 방법

- 가. 온라인신청 및 서류 제출기간 : 2023.04.03.(월) 09:00 ~ 04.23.(일) 24:00
- 나. 신청방법 : 인포21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업로드
- ※ 팀으로 신청 시 Info21에 팀원 및 팀장 모두 신청 필수(미신청 시 불이익)

7.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센터 장학팀(02-961-0045)에 문의